

무용창작에 적용된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중성 표현분석

Representational Analysis of Duality applied in Dance Creation at the Romeo and Juliet

안주경

경상대학교 민속무용학과

Ju-Kyung An(anjk0318@hanmail.net)

요약

이 연구는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에 나타난 모순구조와 사랑의 이중성에 대한 실제 창작 작품을 분석하여 장면별 움직임의 적용과 의미연구를 시도하였다. 연구자는 작품에 나타난 모순구조와 사랑의 이중성을 versus(對)의미로 설정하고 이를 작품 『Romiet&Julio zwei Versus』로 창작하여 공연에 나타난 사랑의 이중성을 분석하였다. 분석도구는 라반의 동작분석방법으로 신체, 에포트, 공간, 웨입의 네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되었다. 분석결과 원작에 나타난 사랑의 이중성은 작가의 다원적 시각의 표현이며, 역설적 대비보다는 동질성의 극적구조로 나타났다. 창작 작품분석결과 사랑의 이중성은 궁극적으로 새로운 차원의 절대적 균형을 이루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되었음이 입증되었다.

■ 중심어 : | 셰익스피어 | 로미오와 줄리엣 | 모순구조 | 이중성 | 라반동작분석 |

Abstract

This study made an attempt to apply and meaningful research of the analysis of the scene with the actual creative work about the contradictory structure and the love of duality appeared in the Shakespeare's "Romeo and Juliet". The researcher set up the meaning of versus (對) between the contradictory structure and the duality of love. So I analyzed the duality of love appeared on the creative performance named "Romiet & Julio zwei Versus". With the Laban's behavior analysis, the analyzing instruments were separated into four parts as the body, the effort, the space and the shape. As a result of the analyzing, the duality of love in the original work was the expression of the artist's pluralistic vision, and dramatic structure of homogeneity rather than the paradoxical contrast. After analyzing a creative work, the duality of love has been proven as an important factor with ultimately a new dimension of absolute balance.

■ keyword : | Shakespeare | Romeo and Juliet | Contradictory Structure | Duality | Laban Movement Analysis |

1. 서론

예술창작 작업의 동기는 인간의 본성인 순수성에서

출발하고, 순수체험의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예술작품이라는 결과물을 얻는다. 새로운 예술은 상상력과 실천에서 비롯되고 그 실험과정은 항상 파격적인 사고로부

* 본 연구는 경상대학교 발전기금재단 학술연구과제로 수행되었습니다.

접수번호 : #121023-003

접수일자 : 2012년 10월 23일

심사완료일 : 2012년 11월 20일

교신저자 : 안주경, e-mail : anjk0318@hanmail.net

터 시작된다. 그러나 파격적인 사고와 실천은 기본단계에서부터 정통성(legitimacy)이 담보되어야만 가능하다. 예술분야의 모든 영역에서 정통성이란 그 분야의 기본정서와 기법이 존재하고, 작품에서는 뚜렷한 주제와 목표의식의 형상화를 통한 실험적인 실천이 가능해야 하는 것이다[1].

이러한 실험적인 성향들은 일종의 규칙이나 획일화된 형식과 가치기준에 도전하듯 예술작업에 있어 다양한 접근방법을 통해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창조하고 있다. 또한 예술작품에서 훌륭한 명작은 그 자체로 힘과 에너지가 넘치고 다양한 가치를 발산하기에 공연예술 영역에서 문학과 희곡의 정통성을 담보로 수많은 창작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셰익스피어의 명작들은 다양한 창작이 이어져왔으며, 『로미오와 줄리엣』은 연극, 무용, 오페라, 뮤지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장 많이 공연되어 온 작품으로 서양고전발래에서 한국무용 현대무용창작에 이르기까지 안무가의 관점에 따라 사랑의 수용과 변용에 대한 다양한 실험적 창작이 다루어져오고 있다.

또한 최근 현대무용의 창작성향은 움직임의 유희성보다는 움직임 자체의 언어적 표현성으로부터 본질적인 창의성을 추구하고 있으며, 그 배경으로는 춤 움직임의 독창적인 가치와 비언어적 논리성이 강조되고 있다. 역설적으로 이러한 논리적 가치와 표현가능한 모든 언어적 표현은 무한정한 잠재의식으로부터 시작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이는 창의성(creativity)의 실현을 포함하며, 창의적 실현이란 새로운 발견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독창적 논리의 계발과 창의적 가치로서 반드시 목적에 의한 실천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공연예술의 창의성 실현은 특성상 근본목표와 장르별 표현매체의 창조적 실험을 통한 무한영역의 실천을 근거로, 앞서 말한 무한정한 잠재의식으로부터 발현되는 상상력과 이미지를 극대화하려는 목적을 갖기 때문이다[2].

셰익스피어의 작품 『로미오와 줄리엣』은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사랑이야기로 알려져 있지만, 사랑의 깊은 관점에서 보면 두 가지의 큰 흐름으로 이해되는데 이극의 시대적 배경과 관련된 개념의 사랑과 이를 넘어서는 사랑의 이야기로 구분된다. 즉, 작품에서 찾을 수 있는 시대적 사랑의 흐름에는 그 당시에 유행하던 ‘궁정

식 사랑(Courtly Love)’과 시대를 초월한 셰익스피어만의 본질적인 사랑관념이 그것이다[3]. 또한 『로미오와 줄리엣』은 희랍 고전비극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죽음과 사랑의 역설적인 이중성을 극화한 작품이며, 이 주제는 셰익스피어가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발전시킨 주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소포클레스나 에우리피데스의 비극에서도 볼 수 있는 사랑과 죽음의 역설적인 동질성을 셰익스피어는 단지 주제적인 차원에서 극화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역설을 모순어법이라는 구체적인 수사적 기법을 동원해서 이를 극적 구조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그 독특함을 보여준다.

때문에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사랑은 운명적인 증오에서 발전하는가 하면, 증오의 결정체인 죽음은 동시에 사랑과 화해로 정 반대의 발전을 보이기도 한다. 이것은 시간의 작용 안에서 사물의 변화와 변신을 역동적으로 파악한 르네상스 인물, 특히 셰익스피어의 다원적인 시각을 반영한 것이며, 이러한 모순적인 다양성을 표현하는 방식이 모순어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작품의 모순어법이 자아내는 효과 즉, 사랑과 죽음의 힘 또는 죽음이 사랑의 힘에 의해서 새로운 차원의 균형을 이루는 것을 모태로 그 이중성을 심도 있게 탐구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로미오와 줄리엣』이 갖고 있는 사랑과 죽음, 남과 여, 이성과 자아, 개인과 집단, 절대와 상대, 대립과 반목 등의 이중적 갈등구조 속에 특유의 아름다운 대사과 극적 효과를 분석하여 이를 초현대적 감각의 무용창작예술에 도입하였다. 그리하여 본 연구자는 무용예술의 미적특성을 결부한 실제창작 『로미엣&줄리오-Versus』를 공연하였고, 이를 토대로 사랑에 대한 이중성의 특성분석을 시도하였다. 역사적으로 작품 『로미오와 줄리엣』은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작품연구와 공연들이 있어왔고 무용분야 역시 많은 창작 시도들이 전개되어왔으나 실제창작에 대한 분석적인 사례연구들은 매우 미미하다. 가장 근접한 선행연구로는 “Juliet의 캐릭터에 나타난 시대별 여성 표현양상 연구”이며, 내용은 줄리엣에 대한 안무가별 특성을 구분하여 해석한 연구이다[3]. 따라서 본 연구자는 셰익스피어 원작 『로미오와 줄리엣』을 현대 춤으로 창작하

여 공연사례를 근거로 장면별 특성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분석의 논점은 모순의 갈등구조와 사랑의 이중성이며, 라반의 움직임 분석방법을 토대로 움직임의 실제적 다양성과 장면별 안무특성을 제시할 것이다.

II. 연구방법 및 목표

1. 연구방법과 분석도구

이 연구에서는 셰익스피어의 작품 『로미오와 줄리엣』에 관한 문헌연구와 연구자의 실제 공연사례를 중심으로 사랑의 이중성과 모순구조의 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원작에 나타난 사랑의 모순구조와 이중성의 관점은 탄탄한 극적구성과 은유적 표현성에 근거하고, 현대적 춤의 강렬한 사랑방식의 표현들은 다양한 움직임의 추상적 이미지의 동작분석을 통해 그 특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에 연구자는 원작 『로미오와 줄리엣』을 실제 창작 작품으로 공연된 『로미엣&줄리오-Versus』(Romiet&Julio zwei-Versus)로 설정하였다. 이는 사랑의 이중성을 가장 극적으로 표현함과 동시에 각기 분리된 객체로서 남녀의 사랑과 죽음의 힘 또는 죽음이 사랑의 힘에 의해서 새로운 차원의 균형을 이루는 것을 모태로 그 이중성을 나타내는 상징적 차원이기도 하다. 따라서 원작 『로미오와 줄리엣』에 나타난 사랑의 이중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실제 창작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장면별 움직임의 적용과 의미연구를 시도하였다.

또한 움직임 분석도구는 라반의 동작분석방법(Lavan's movement analysing system)에 의해 신체(body)에포트(effort)공간(space)쉐입(shape)의 네 가지로 구분하여 그 특성을 분석한다. 라반의 동작분석은 첫째, 호흡과 움직임의 특성에 의한 신체인식 둘째, 시간·공간·무게·흐름의 복합적 요소를 통한 역동적 에너지의 분석관점에서의 에포트요인 셋째, 움직임과 작품표현의 의미 공간과 복합적인 인식차원의 공간성 인식 넷째, 움직임의 형태에 의한 쉐입으로 구분된다.

원작에 나타난 사랑의 모순구조와 이중성은 탄탄한 흐름으로 작용되고, 작품표현에서도 움직임의 특성과

안무의 핵심을 이룬다. 그러나 현대무용창작을 통한 실증적 사례분석연구인 만큼 원작흐름의 충성도보다는 사랑의 이중성이라는 중심주제의 관계성과 춤의 움직임표현에 대한 상징적 의미연구가 분석의 중심을 이룬다.

2. 연구목표

이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했듯이 모순구조와 사랑의 이중성이라는 주제가 크게 부각되어 창작되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물의 관계설정과 흐름 그리고 연결과정들에 나타난 움직임의 표현방법에 대하여 실제공연사례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연구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원작 『로미오와 줄리엣』의 창작공연에서 보여진 모순구조의 역할과 사랑의 이중성으로 대칭되는 표현과정과 움직임언어의 특성 그리고 상징적 의미를 장면별로 분석한다. 즉 사랑의 이중성이라는 관점에서 작품에 나타난 중심인물들의 관계구도와 춤의 활용구조를 중심으로 장면별 분석을 시도한다.

둘째, 장면별 분석은 라반의 동작분석방법에 의해 body-effort-space-shape으로 구분하여 움직임의 변화요인과 특성을 분석한다.

셋째, 사랑과 죽음이라는 중심주제와 극중 몰입과 연계된 역동적 움직임의 흐름과 반응 특히 템포와 리듬활용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여 중심주제와의 논리적 연계성을 집중분석한다.

위와 같은 세 가지의 연구목표를 통해 작품 『로미오와 줄리엣』의 모순구조와 사랑의 이중성을 분석하고 라반동작분석에 의한 장면별 분석을 통해 현대 춤의 창작과 움직임의 표현에 대한 연계가능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창작분석과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춤 움직임의 상징성과 의미 분석 그리고 움직임활용과 표현의 다양성에 대한 또 다른 차원의 논리적인 접근방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초현대적인 감각과 창작의 실험적 선택은 끊임없는 새로운 현상이론(grounded theory)으로 작용될 것이다.

III. 연구결과

창조적인 결합의 가치는 장르별 특성이 갖는 서로의 의미관계(signification)에서 구체언어의 은유적 표현과 움직임의 상징적 표현의 필연적인 가치요소로 작용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다. 원작 『로미오와 줄리엣』에 나타난 사랑의 이중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 사랑과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지만, 과연 이 사랑과 죽음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작품에 대한 평가와 시각이 달라진다. 또한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가장 두드러진 언어기법은 모순어법(oxymoron)이다. 모순어법이란 정신과 육체, 사랑과 증오, 빛과 어둠과 같은 서로 반대되는 요소들을 함께 끌어 모아 얼핏 보면 그 모순됨이 해결되지 않은 채 어리석게 보이지만 다시 보면 예상 밖의 균형감과 각 숨은 진실을 들춰내는 자아내는 기지에 찬 수사기법이다[4]. 결국 이 작품의 모순어법 갈등구조는 태양 vs 어둠/ 젊음 vs 늙음/ 사랑 vs 죽음으로 드러난다[5].

1. 장면설정

이 연구에서는 원작 『로미오와 줄리엣』에 나타난 모순구조와 사랑의 이중성을 중심 주제로 『로미엣&줄리오-Versus』라는 제목과 함께 연구자의 안무에 의해 공연(2010.3.10. 부산)되었으며, 안무 의도와 작품내용은 다음과 같다.

작품 『Romiet&Julio zwei Versus』는 셰익스피어의 원작에 충실하게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기보다는 두 남녀 간의 애절하고 숙명적인 사랑을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 하면서 오늘날의 남과 녀의 정체성을 되짚어 본다. 또한 그 들만의 강렬한 사랑법으로 패러디하여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사랑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그려낸 현대판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묘사하고자 한다. 두가문의 상대적 대립에서 벗어나 남, 녀의 대립, 이성 과 자아의 대립 등을 두고 세상의 작거나 혹은 큰 사건들을 사랑이라는 절대적이지만 상대적인 주제를 놓고 개인에서부터 다수의 집단성을 놓고 풀어나가며 세상의 모든 이들이 로미오 혹은 줄리엣이라 가정 하에 극

의 구조를 희비극으로 구성하여 서로 반목과 질시를 일삼는 두 명문가를 중심으로 작품을 전개해 나아간다. 또한 작가 본인이 생각하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작품 속에 투영하여 비극이지만 꼭 비극적이지만은 않는 다양한 불거리와 재미를 주어 삶에 지친 인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작품이 되고자 한다.

Prolog

아름다움을 사랑에 비유함은 사랑의 모습을 모르는 자 / 추함을 사랑에 비유함은 사랑을 알았다면 교만한 자.

1

먼 기억에서 저녁에 떠나는 사람 그림자에게도 우산
을/ 지나간 발자국은 그냥 내버려둬요 꽃잎에서 놀던
그 아이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가 보다/ 잘린 듯 꺼내든
아이는 구부러진 상처에게 꿰어간다. 아직 얼마나 오래
그리고 언제 성 밖 처녀야 꽃 같던 웃음도 이젠 먼 기억
으로/ 가슴 속 노을 밟고 어둠 속 들어서서 사람 하얀
우산 하나 들고 마중 온다.

묵묵히 고개 숙여 멀리 흐린 밤의 끝에서 아침이면
그 곳에 가서 신선한 이슬에 눈물을 뿌리는가? 태양이
뜨면 우울한 아이는 살며시 돌아와 방안에 들어가 창문
을 닫아 밝은 햇빛을 틀어막아 칠흑 같은 밤을 만든다.
기어가고 기어가서 아득하다 발소리 죽여 기어오르는
창백한 얼굴들 안개 속 한 줄기 비명으로 “밝은 태양아
떠올라서 샘 많은 달님을 죽여 다오.”

2

무슨 까닭에 싸우는 사랑. 사랑하는 미움은 무(無)에서
생겨난 유(有)/ 무거우면서도 가벼운 공허한 허위,
걸치려는 근사하나 풀사나운 혼돈/ 책 읽듯 얼굴을 살
피고 자연의 붓이 그려놓은 미(美)를 찾아내 보라. 눈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면 좋아하도록 애쓰고 그러나 그
이우에는 강요하지 마라/ 행운의 낮과 연결되는 행운의
밤을 찾으라.

큐피트의 날개라도 빌려 하늘 높이 날자/ 그러다 사랑의
무게에 짓눌려 추락하고 말지어다./ 거칠고 잔인하고
사나우면서도 가시처럼 찌르는 것이 사랑. 마음에

느낀 예전의 것은 부정(不正) 눈아, 그 모든 것을 부정 하여라. 누군가의 손길이 그대의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 라면 낮은 불현 두 순례자와 같은 입술로/ 키스와 함께 추한 자국을 씻어라. 움직이지 말지 어라. 그리고 입술 의 기도를 받으라.

꿈이란 게으른 것들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 공기처럼 잡히지 않고 바람처럼 변덕스럽다. 단 하나의 사랑아. 단 하나의 증오에서 싹트나니 보고나면 이미 너무 늦었다!

격렬한 기쁨은 격렬하게 끝나고 불과 화약이 서로 닿 자마자 폭발하듯 승리의 절정 속에서 죽는 법/ 나에게 불리는 모든 것들이 갈기갈기 찢겨라. 그리고 훔날려라. 그러하면 너덜거린 몸 똥 아리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어서 오라. 빛!! 검은 사랑의 밤아.

축복의 보따리가 네 등 뒤에 쏟아지건만 너는 어찌서 탄생과 하늘과 땅을 저주하느냐 죽음이 그대의 달콤한 숨결을 빼앗아갔을지언정 그대의 아름다움은 빼앗아가 지 못했구나.

죽음도 그대를 정복하지는 못했다. 눈아, 마지막으로 보아라. 팔아, 마지막 포옹이구나. 입술아, 생명의 문아, 정당한 키스로 도장을 찍어 만물을 독점하는 죽음에게 알려주려나.

거칠고 잔인하고 사나우면서도 가시처럼 찌르는 것이 사랑 항상 눈이 가려져 있는 사랑이란 늙은 눈 없이도 갈 길을 잘도 찾아간다. 어찌면 사랑은 눈이 떠있는 상태가 아닐지도 몰라 마치 눈이 감겨져 있는 것처럼 이성은 마비되고 마음의 움직임만으로 뜨거운 야수처럼 돌변하지. 단 하나의 사랑아 단 하나의 증오에서 싹 트나니 보고나면 이미 너무 늦었다!

그 눈을 뜨고 기다리고 있을 그 곳으로... 단 한번 뿐 인 인생 살아본 느낌이 어떠한가? 길 잃은 외로운 아내 로 전락하였나? 아니면 무거운 인생에 축 처진 가장의 모습으로? 세월을 헤아려 보면 흐르는 눈물뿐 뜨거운 가슴으로 마음껏 사랑하라 시련에 빠지지 말지어다. 아무것도 그 무엇으로도.

3

다가오는 마음을 굳게 닫아두니 지금 그대에게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다. 예전 어린기억은 배신감을

기억하고 어둠이 거뒀진 가식을 묶는다. 심지 없는 그 대는 공연히 해바라기와 멀어지고 어머니 품속으로 기어들어간다.

손가락 물고 이기적으로 바라보니 저마다 저만 안 죽 는 다는 광적인 얼굴들 시리고 아련한 기억만 흐르고 입가엔 미소만 흐른다. 그대들의 모든 죄를 사하니 아 품을 가두어 몸부림친다.

축축히 젖어간 마지막 마음에 도망쳐간 사랑아 그대 의 모든 사랑과 미움을 털어버린다 손끝 하나에 털어버 린다. 꿈이란 게으른 것들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 공 기처럼 잡히지 않고 바람처럼 변덕스럽다.

산산이 뼈를 부취 어둠에 흩어놓은 마음의 한 칼이 없다 쓸려가는 한 곳으로 눈먼 우리들은 모르는 풍경 속으로. “지금 이곳은 어디일까?” 신앙이 절망으로 변 하면 내 입술에서 죄를.

달콤한 꾸짖음 내 죄를 돌려주소. 언젠가는 영혼이 그대를 인도하리라. 상처받은 그대 나는 그대를 도와주 길 기다리고 있다네. 내 그대에게 달려가 구원해주리 기회가 주어진다면.

4

아무도 지나온 길을 홀로 되돌아 갈 수 없기에 어둠 속에서 몰래 꽃을 심는다. 슬픔의 근원을 알 수만 있다면. 한 가닥 숨결로도 충분히 소리 내지 않고 죽지도 않고 다가갈 수도 지워낼 수도 없다 어리고 아름다운 것 들 속엔 치욕이 많다.

“운명의 별들아, 멧대로 해라! 이제 죽음과의 마지막 계약이다.”

눈 부비고 다시 바라본다. 너는 아름다움 그러나 나 는 아직 죽지 못 했다. 때가 되었습니다.

지옥으로 데려 가기 위해 숨조차 없는 곳으로 탄식. 절망. 광기. 사랑을 두 귀를 틀어막고 목 빼고 몇 대씩 아프게 빠져나간다. 죽음보다 깊은 사랑으로 살아갈. “안녕 사람들...”

epilogue

삶의 무게와 고통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단 한마디의 말 그것은 사랑이다 - 소크라테스-

2. 장면분석

1) 태양과 어둠의 모순구조는 젊음과 사랑에 대한 다양한 표현방식으로 나타난다. 이중 줄리엣으로 부각되는 무용수와 그를 둘러싼 무용수들 간의 자리 뺏기가 시작되며 다분히 젊은이들의 사랑에 대한 욕구가 반영된 장면이다.



그림 1. 각각의 대립과 갈등구조

트러스트형태로 4쌍의 움직임들은 각각의 대립과 갈등구조로 표현되며 로미오의 사랑 또한 이들과 다르지 않다. 이 장면에서는 매우 절제된 호흡과 움직임에너지는 순차적인 연결성이 있으나 오히려 공간묘사의 기묘한 연결에 의해 갈등구조의 극적표현을 암시하기도 한다. 호리존트의 영상 또한 프롤로그의 특성을 잘 대변하고 있으며, 삼차원적 공간의 입체감으로 나타난다. 중요한 요인은 로미오와 줄리엣이 당면한 사춘기의 이중성과 모호성을 강조함이다.

이후 이어지는 젊은 남녀들의 원형과 반원구조의 군무와 동시에 독립된 줄리엣의 솔로는 남과 여 그리고 개인과 집단구조를 선명하게 나타낸다. 여기서 나타내



그림 2. 원형구조와 독립 공간

는 공간은 원 주변을 지나는 이동경로와 원 거리의 공간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삼차원 표현방식으로 구분된다.

2) 사랑과 증오에 대한 갈등을 묘사하는 장면으로 그 경계선은 무대 후면전체를 좌에서 우로 한 개의 라인을 그리며 매우 느리게 움직임을 행한다. 그의 손에는 긴 장대가 주어져 있는데, 강하고 얽은 조명라인으로 확실한 공간영역을 설정한 가운데 다시 트러스트 구조의 젊은 남녀 4쌍의 춤은 동시에 이어진다. 자연의 빛이 그려놓은 경계선처럼 남과 여, 기쁨과 슬픔, 절대와 상대적인 모순점을 대변하고 있다.



그림 3. 갈등구조와 공간

안무의 특성은 마치 출구가 없는 경계를 반영하듯 불안정한 혼돈을 그리듯 움직임 역시 매우 절제된 호흡과 느린 그러나 2인무들에서는 각기 격정적인 에포트의 활용들이 이어진다. 상징적 움직임언어인 탱고형식의 매혹적이고 강렬함이 표현되어 작품의 전체적인 스토리를 부각시키는 동시에 몽타주 형식에 빚대어 즉각적인 움직임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특성들은 무게와 시간성 즉, 템포조절을 통해 잘 나타나고 있다. 이후 이어지는 반원형태의 넓은 공간구조와 무대 한 중심에서 펼쳐지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의 춤은 미끄러지듯 유연한 연결로 보여지며, 뒤에 서 있는 8명의 무용수들은 각자의 포즈와 정지된 동작들로 중심 듀엣에 큰 이미지를 돋보이게 하는 역할로 이어진다. 이러한 안무구성은 캐릭터의 강한 몰입을 유도하여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성과 자아에 대한 모순성과 사랑의 이중성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3) 사랑과 죽음에 대한 역설적인 이중성은 곧 동질적 가치로 표면화되는데, 특히 이 장면에서는 對(versus)로 대변되는 개체적 속성들과 절대적인 정 반대차원의 공간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즉, 10명의 남녀무용수는 앞뒤로 두 줄의 형태이며, 줄리엣의 사랑으로 대변되는 앞줄의 여자무용수들은 상당한 에너지와 빠른 움직임 전환을 이루고 있다. 뒤의 남자들도 매우 무거운 호흡과 움직임 에너지를 통해 남녀의 절대적인 이중적 사랑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후 두 줄은 앞뒤로 교차하며 일종의 놀이(가위바위보)형태로 유희성을 보여주는데, 사랑의 극적구조에 따른 역동적인 유희성을 통한 남녀의 절대적 이중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어지는 남자군무의 역동성은 남녀의 경계를 확연히 구분지어 사랑과 죽음의 갈등구조를 극명하게 보여줌으로서 사랑을 모티브로 한 작품전체의 대비(contrast)를 나타낸다. 군무의 호흡과 신체에너지의 활용에서 흩어지고 모아지는 역동적인 분출은 오히려 강한 긴장감을 형성함으로써 사랑의 역동적인 구조로 극명하게 드러난다. 원작에서 보듯이 이상적 여인에 대한 남성의 일방적이고 맹목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채울 수 없는 갈망’에 대한 역동적인 사랑구조로 표현된다.



그림 4. 남녀의 절대적 이중성

4) 로미오와 줄리엣의 각각의 솔로가 이어지는 장면은 로미오의 로잘린에 대한 태도나 갈등요소로 표현된다. 김순형[6]은 로미오와 줄리엣에 나타난 양면적 사랑의 실체연구를 통해 로잘린에 대한 로미오의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 이를 르네상스시대와 중세적 가치관 그리고 사회현상과 문학적으로 ‘궁정식 사랑’으로 설명하고 있다. 때문에 로미오는 로잘린 뿐만 아니라 줄리엣도

이룰 수 없는 사랑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다시 말해 ‘로미오와 줄리엣’에는 당시 유행하던 관념적 사랑의 개념을 초월하는 사랑이라는 또 하나의 흐름이 있다. 그것은 그 시대적인 사랑을 비판하면서 변하지 않는 사랑의 속성이 무엇인가를 보여줌으로서 사랑의 형태는 사랑을 노력과 의지로 지켜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해주는 부분이다.

작품에 나타난 줄리엣과 로미오의 솔로부분은 이룰 수 없는 사랑의 이상적인 대상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 로미오는 로잘린이 평생 사랑을 하지 않기로 맹세한 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오히려 줄리엣에 대한 아름다움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은유적 작용(metaphor)으로 가득 차 있다. ‘빛과 어둠’의 이미지로 그려지는 장면에서는 줄리엣에 대한 강렬한 인상을 표현하며, 그녀는 햇불보다 더 밝은 빛이며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보석으로 비유된다. 무대 위에서 로미오의 솔로부분은 조명의 빛을 통한 이미지로 투영되는데 빛에 대한 이미지는 로미오가 천상의 아름다움을 줄리엣에게서 발견하였음을 의미하고, 로미오의 가슴에서 영원한 ‘빛’으로 인식하였음의 서정적인 표현으로 나타난다. 원작에서 로미오와 줄리엣은 어둠의 밤과 ‘사랑의 행위를 위한 밤(love-performing night)’을 기다릴 만큼 사랑의 합일을 보여주나, 이 창작에서는 남녀 사랑에 대한 이중성보다는 아름다운 순수성과 갈등을 보여준다. 이는 처음만나는 무도회 장면과 발코니 장면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랑은 정신과 육체로 나뉜 것이 아닌 그것이 같이 조화된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림 5. 무대난간의 소통장면

이후 보여 지는 장면에서 로미오와 함께 남자들은 무

대 앞의 난간에 걸터앉아 관객들과의 쉽 없는 대화를 주고받는다. 이는 사랑과 죽음에 대한 이중성을 직접 소통방식을 통해 집중력과 상충몰입효과를 기대함으로 인식된다. 오히려 사랑의 이중성에 대한 反논리적 의미로서 순간반전과 리드미컬한 단계적 소통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안무구성의 표현에서도 에너지의 직접적인 소통과 몰입을 통한 클라이막스 그리고 자동반복을 통한 페이스스(pathos)의 에너지가 돋보이게 함이 목적이었다. 창작 작품에서 사랑과 죽음이라는 절정은 곧 사랑의 힘으로 상징되는 긴 장대와 한 줄기의 빛으로 묘사된다. 이는 원작에서 사랑과 죽음이라는 도구의 경계점으로 묘사되는 밧줄(cord)과 강심제(cordial)와 같고 로미오는 줄리엣의 심장과 합치는 합일된 사랑 즉, 결합을 통해 새로운 탄생을 상징한다[7]. 결국 죽음은 사랑의 다른 표현양식 혹은 이름에 불과하다. 이질적인 모순변화에 의해서 그 각각의 의미를 잃지 않으면서 새로운 탄생이라는 하나의 의미로 수렴된다. 마지막 장면의 에포트는 다양한 요소로 발전된 흐름을 보여주고 템포와 리듬변화에 의한 시간에포트 그리고 수직과 수평적인 공간에너지의 활용과 점점 증가하는 공간에너지가 상충몰입구조로 강조됨으로서 페이스스효과와 함께 합일된 사랑의 이중성이 표현되었다.

V. 논의 및 결론

1. 논의

이 연구는 『로미오와 줄리엣』에 나타난 사랑의 이중성을 탐구하고 이를 무용창작에 적용함으로써 원작에 나타난 사랑의 이중성에 대한 모순구조와 움직임의 표현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논의의 핵심은 원작에 나타난 사랑의 모순구조와 이중성에 대한 표현이며, 작품분석은 라반의 움직임 분석방법이 적용되었다. 따라서 연구결과를 토대로 『로미오와 줄리엣』에 나타난 사랑의 이중성은 다음과 같이 논의되었다.

첫째, 『로미오와 줄리엣』에 나타난 사랑과 죽음의 이중성은 주제적 차원에 그치지 않고 그 역설은 모순어법이라는 구체적인 수사적 기법을 동원하여 극적구조로 발전시켰다. 이는 사랑과 죽음의 동질성으로 인식되

어 사랑은 운명적인 증오에서 발전하고 증오의 결정체인 죽음은 동시에 사랑의 화해로 정 반대의 발전을 보이고 있다. 박우수[4]는 『로미오와 줄리엣』과 모순어법의 연구를 통해 작품에서 가장 두드러진 언어기법은 모순어법으로 사랑의 이중성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둘째, 연구자는 작품에 나타난 모순구조와 사랑의 이중성을 versus(對)의미로 설정하고 이를 작품 『Romiet&Julio zwei Versus』로 창작하여 공연에 나타난 사랑의 이중성을 분석하였다. 사랑에 대한 셰익스피어의 다원적 시각은 이중성의 구조로 분석되고 창작과정에서도 새로운 퍼포먼스의 형태로 나타났다. 사랑과 죽음, 남과여, 이성과 자아, 개인과 집단, 절대와 상대, 대립과 반복 등의 개체적 속성들은 사랑과 화해의 절대적인 힘에 의해 새로운 차원의 절대적 균형을 이룸을 의미한다. 결국 작품창작에서 사랑의 이중성과 versus는 모순구조의 비논리적인 언어의 허구적 표현보다는 춤 움직임표현에 대한 상징적 의미로 분석되었다. 즉, 작품창작에서 versus는 사랑의 이중성에 대한 합리적 움직임언어의 상징적 의미에 대한 의사소통의 도구로서 역설적인 병합구조로 작용되었음을 의미한다.

셋째, 작품창작에서 움직임은 라반 움직임분석방법을 통해 분석되었으며, 요인은 신체, 공간, 에포트, 웨입이다.

분석 결과는 김금수[3]의 줄리엣의 캐릭터와 여성 표현양상의 분석방법과 그 흐름을 함께하고 있으나, 안무구성에서 사랑의 이중성은 움직임표현의 집중력과 상충몰입효과를 통한 단계적 소통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움직임에너지의 몰입을 통한 클라이막스와 페이스스(pathos)효과는 작품에서 사랑과 죽음이라는 절정에 그 초점이 맞춰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1. 움직임표현의 변화요인

	body	space	effort	shape
I	유연한 움직임의 변화	공간의 몰입	가벼운 흐름	트러스트 형태
II	순차적 연결성	원 주변의 이동	충동적 흐름	원형구조
III	빠른 움직임	공간의역동성	경계의 흐름	앞 뒤 상대성
IV	유연한 흐름	빛의 공간 이미지	메타포 작용	페이스스 형태

2. 결론

예술적 표현과 형식의 추구는 항상 새로움을 찾기 위한 실험적 선택의 연속이며, 해체와 융합을 통한 생명력을 창조한다. 이 연구는 『로미오와 줄리엣』에 나타난 사랑의 이중성을 토대로 창작 작품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창작의 핵심은 versus(對)의미의 개념범주화를 통한 사랑의 모순구조와 움직임의 표현으로 귀결되었다. 라반의 움직임 분석을 통한 결과 역시 사랑의 이중적인 모순구조와 움직임표현의 다양성에 초점이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결론을 짓고자 한다.

첫째, 원작에 나타난 사랑과 죽음의 이중성은 작가의 다원적 시각의 표현으로서 이중성의 대비는 역설적인 의미로서 구분보다는 동질성에 가까운 이해와 극적구조의 형태로 표현되었다.

둘째, 창작의 핵심을 versus(對)의미로 개념화 시킴으로서 사랑의 이중성은 사랑과 화해의 절대적인 힘에 의해 새로운 차원의 절대적 균형을 이루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되었다.

셋째, 움직임표현의 분석결과 드라마의 극적구조로 부각된 사랑의 이중성은 은유적 표현을 위한 초현실적인 기법과 페러독스(paradox)로 작용되었고, 사랑의 이중성에 대한 추상적인 상징성은 움직임표현의 시(詩)적 활용에 따른 의미관계(signification)로 나타났다.

『로미오와 줄리엣』에 나타난 사랑의 이중성은 희곡의 극적구조와 움직임표현의 유기적 형태로 창조되었으며, 이에 대한 논리적 구조와 학문적 평가는 양식화과정의 이해와 차이임을 강조하며 연구를 맺고자 한다.

참고 문헌

- [1] 김금수, *Juliet의 캐릭터에 나타난 시대별 여성 표현양상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8.
- [2] 김순형, *로미오와 줄리엣에 나타난 양면적 사랑의 실체*,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 [3] 김희진, *셰익스피어 작품에 나타난 여주인공의 영화적 재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 [5] 박우수, “사랑과 죽음의 이중성: 로미오와 줄리엣과 모순어법”, *셰익스피어 연구*, 제41권, 제3호, pp.417-439, 2005.
- [6] 신현숙, “연극 번역과 의미소통에 관한 고찰-오테석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중심으로-”, *기호학연구*, 제23권, pp.249-280, 2006.
- [7] 안병순, “무용극 ‘안드로마케’ 제작을 통한 창의적 사고인식 변화과정연구”, *한국체육학회지*, 제48권, 제6호, pp.441-452, 2009.
- [8] 안병순, “이오네스코 부조리단막극 ‘결함’에 나타난 반사회적 폭로와 희극적 춤의 분석”, *한국체육학회지*, 제48권, 제4호, pp.425-434, 2009.
- [9] 안병순, “이오네스코 ‘의자들’을 통한 부조리극과 현대 춤의 창작과정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제47권, 제2호, pp.351-359, 2008.
- [10] 안주경, 2008 안주경의 춤 공연프로그램, 2008.
- [11] 안주경, 2010 안주경의 춤 공연프로그램, 2010.
- [12] 최청자, *Rudolf von Laban 동작 분석 이론의 무용교육 적용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7.
- [13] D. Jacqueline, “Laban Movement Analysis: A Key to Individualizing Children’s Dance,” *JOPERD. Fed*, pp.31-33, 1995.
- [14] Giacomo Oreglia, *The Commedia dell’Arte* New York: Hill & Wang, p.41, 1968.
- [15] Groff, Ed, “Laban Movement Analysis: Charting the Ineffable, Domain of Human Movement,” *JOPERD. Fed*, pp.27-30, 1995.
- [16] J anis Pforsich, “Labanalysis and Dance Style Research: An Historica. Survey and Report of the 1976 Ohio State University Research Workshop,” *CORD Dance Research Annual IX*, pp.59-74, 1976.
- [17] Lynn Renee Cohen, “Introduction to Labananalysis: Effort/ Shape,” *CORD Dance Research Annual IX*, pp.53-58, 1976.

저 자 소 개

안 주 경(Ju-Kyung An)

정회원



- 1984년 2월 : 세종대학교 예체능 대학 무용학과(무용학사)
- 1991년 8월 : 세종대학교 예체능 대학 체육학과 무용전공(체육학 석사)
- 2000년 3월 ~ 현재 : 경상대학교

교 민속무용학과 교수

<관심분야> : 무용비평